

력사소설의 세태풍속묘사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부교수 백 현 숙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의 가치는 그 나라 인민의 민족성과 민족생활을 옳게 반영하였는가, 형상에 민족적인 맛이 있는가 하는것과 많이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99~100페이지)

민족세태풍속은 력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사람들의 관습적인 생활규범이나 방식이다.

세태풍속은 민족별로, 지역별로 특수하게는 사람들의 사회적집단별로 독특한 양상을 띠는데 거기에는 해당 민족이나 지역 및 사회적집단의 력사와 그 집단성원들의 생활감정이나 취미, 기호 등이 반영된다.

조선민족은 한강토에서 반만년의 오랜 세월을 두고 순결한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면서 자기의 고유하고 우수한 풍속과 전통을 창조하고 계승발전시켜왔다.

력사소설창작에서 생활 일반에 대한 형상을 잘해야 하지만 민족생활의 특색이 반영된 세태풍속묘사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지난 시기 력사소설의 세태풍속묘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적인 견지에서 그리고 세태풍속의 다양한 형태개괄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을뿐 세태풍속묘사에서 나서는 창작실천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논문에서는 력사소설창작에서 세태풍속묘사의 필요성과 형상적요구, 그 형상방도를 창작실천적견지에서 밝히려고 한다.

2. 본론

2.1. 력사소설창작에서 세태풍속묘사의 필요성

력사소설창작에서 세태풍속묘사를 잘하여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인민들에게 우수한 민속전통을 잘 알려주어 그들이 민족성을 적극 고수하고 발양시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민족풍속은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동한다.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자존심, 조국애와 민족애는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깊이 간직하고 일상생활에서 민족적인것을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는데로부터 생겨나는것이다. 사람

들은 민족의 우수한 풍속을 잘 알고 그것을 생활에 구현하는 과정에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그것을 더욱 빛내이려는 민족적자각을 가다듬게 된다.

민족풍속을 옳게 계승하고 적극 살려나가는것은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자면 자기의 민족성을 고수하여야 한다. 어느 민족이나 자기의 민족성을 고수하지 못하고 이질화되면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나갈수 없다. 민족을 잘 알고 적극 살려나가는것은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일환으로 된다.

인류사를 돌이켜볼 때 침략자들이 다른 나라를 강점하면 민족동화정책의 한 고리로 풍속부터 없애기 위한 책동을 집요하게 벌리었다는것만 놓고보아도 풍속이 민족성의 중요한 표현분야라는것을 알수 있다.

20세기초 우리 나라를 강도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조선민족이 력사가 깊고 민족성이 공고한것을 꺼리어 극악한 민족문화말살책동을 감행하였으며 특히 《미풍개선》이라는것으로 풍속을 바로잡는다는 미명하에 우리 인민의 미풍량속을 교활한 방법으로 말살하려고 날뛰였다. 일제는 조선이 발전하고 조선사람들이 잘살기 위하여서는 《폐풍》을 개량하고 일본의 풍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민족동화책동을 합리화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에 말세기적이며 퇴폐적인 생활풍조를 끌어들여 풍기문란과 패륜, 패덕행위가 성행하도록 하기 위해 획책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순수성과 공고성을 없애버림으로써 민족성을 말살하고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멸하게 하려는 극악한 행위였다.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게 된다.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적이고 지배적인 세계의 《일체화》라는 강도적궤변으로 다른 민족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반동정책에 매달리고있는 형편에서 매개 나라와 민족은 자기의 민족성을 생명처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 문제를 보다 절박한 요구로 내세워야 한다.

세계의 《일체화》는 다른 민족의 말살을 전제로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일체화》의 미명하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저들의 정치방식과 경영방법, 생활양식을 깊이 침투시켜 다른 민족을 동화시키려 하고있다. 이러한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세계의 《일체화》책동에 말려들어 적지 않은 나라와 민족들이 썩어빠진 생활양식에 물젖어 자기의 민족적본태, 민속을 잃고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민족들사이의 련계와 교류가 밀접해짐에 따라 각이한 민족들의 생활에서도 공통성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들의 독자적이며 개성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며 그 기초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날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희박해지는 민족성을 되살리고 민족의 고유한 본태를 고수하기 위하여 자기 민족의 풍속연구와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풍속이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것만큼 지나온 시대의 풍속에 대한 계승은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과 목적의식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서만 훌륭히 이룩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흘러온 력사를 묘사하는 력사소설은 민족풍속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사람들은 력사소설에 펼쳐진 방불하고 실감있는 민족풍속을 작품의 형상체계안에서 감각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의 풍속을 더 잘 알게 되며 그것을 적극 장려

하고 빛내어나가려는 의지를 가다듬게 된다.

력사소설창작에서 세태풍속묘사를 잘하여야 하는것은 다음으로 고유한 민족생활을 형상마당으로 하는 력사소설의 고유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력사소설창작에서 민족생활을 진실하고 방불하게 형상하는것은 력사소설고유의 특성과 관련된다.

민족생활의 한 부분을 이루는 세태풍속은 민족적인 속성이 가장 진하게 스며들인 생활 분야이다. 세태풍속에는 민족정신, 민족적감정과 정서, 취미와 기호 등 민족심리가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세태풍속의 이러한 속성으로 하여 력사소설창작에서 풍속묘사에 힘을 넣는것은 력사소설의 고유한 민족적특색을 살리는 문제로 나선다.

력사소설창작에서 세태풍속묘사를 잘하여야 소설에 펼쳐진 민족생활의 진실성도 보장할수 있다.

세태풍속은 민간생활에서 표현되는 구체적이며 규칙적으로 답습되는 풍습, 생활방식, 습관 등이다. 그것은 지난 시대의 요소요소에 침투하여 생활속에 풍속이 있고 풍속의 발현이 생활을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력사소설창작에서 지나간 시대의 환경과 생활을 실감있고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는 등장인물들의 생활속에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세태풍속묘사와도 많이 관련된다.

력사소설창작에서 세태풍속묘사를 잘하면 력사소설의 고유한 맛과 견인력도 살릴수 있다.

세태풍속은 그자체가 일정한 견인력을 가지고있다. 세태풍속이 장구한 력사적기간 전습될수 있는 리유의 하나가 세태풍속이 지니고있는 감화력때문이다. 세태풍속은 오랜 력사적기간 민족성원들의 집체적지혜의 종합체로 창조된것으로서 거기에는 민족의 공통적인 감정과 정서가 비껴있기때문에 민족성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풍속은 또한 력사적인물들의 사고와 미감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지나간 시대에 대한 오늘날 사람들의 호감도 일정하게 불러일으킨다.

세태풍속묘사는 소설의 정서적감흥을 높이고 이야기의 전진에도 의의가 있지만 그 자체의 목적과 과정의 흥미, 독특한 정서와 양상적특성으로도 일정한 견인력을 가진다.

이처럼 세태풍속은 력사소설의 기본형상령역으로 되지는 않지만 그 고유한 민족적성격으로 하여 력사소설창작에서 필수적인 묘사대상으로 된다.

2.2. 력사소설의 세태풍속묘사에서 나서는 요구

무엇보다먼저 력사소설에서 사회력사적환경을 위주로 그리는 조건에서 세태풍속묘사를 거기에 안받침하여 형상하는것이다.

일부 작가들은 력사소설의 맛을 살린다고 하면서 세태풍속적인것에만 치우치는 편향이 있는가 하면 생경한 사회력사적환경만을 사료처럼 그려놓아 소설의 민족적인 맛과 견인력을 떨어뜨리고있다.

세태풍속은 작거나 크거나 모든 력사소설들에 필연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민속명절이나 민속놀이와 같은 세태풍속의 대표적인 형태들이 묘사되지 않은 력사소설들에조차 민족도덕생활, 민족생활방식, 민족언어생활 등 세태풍속의 요소들이 등장인물들의 구체적인 생활을 통하여 반영되게 된다. 즉 력사소설이라고 하면 세태풍속묘사가 필연적인것이다.

그러나 세태풍속 그자체가 력사를 이루는것은 아니며 더우기 민족생활을 대표할수는 없다.

세태풍속은 어디까지나 사회력사적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그것을 더욱 풍부히 하는 방향에서 묘사되어야 한다.

장편력사소설 《숙적》(제1부)에서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당시 대표적인 민속명절의 하나였던 대보름명절을 계기로 전개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보름풍속이 결코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를 낳은 기본환경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근대의 가장 큰 사변인 갑오농민전쟁, 일제의 강도적인 략탈만행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직산금광산략탈사건 그리고 조선봉건왕조의 내정에 간섭하여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일제의 《내정개혁》의 개입 등의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전개되고있다.

이처럼 력사소설에서는 사회력사적환경을 기본으로 하여 형상하는 조건하에서 세태풍속을 특색있게 활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세태풍속을 시대적, 계급적, 지역특성에 맞게 력사주의적원칙에서 정확히 그리는것이다.

세태풍속도 시대와 사회제도에 따르므로 그 묘사를 통하여 해당 시대의 특징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세태풍속은 오랜 력사적기간을 존속하면서 다양한 변천과정을 거쳐 발전하게 된다. 세태풍속은 시대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면서 보충되고 발전되여온 풍습이다.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시기의 세태풍속을 그리는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세태풍속도 그 표현이 다를수 있다.

세태풍속을 그릴 때 해당 시대에 존재한 풍속인가, 당대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했는가 등을 정확히 파악한 기초우에서 력사적사실에 맞게 묘사하여야 한다.

세태풍속묘사를 하는데서 계급관계를 정확히 반영하는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의 생활풍습을 이루는 옷차림풍습에서도 계급적차이가 뚜렷하게 표현되고있다. 봉건시기에 통치배들은 옷차림의 차이를 통하여 사람들의 계급적차지와 신분적차이가 직관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장편력사소설 《숙적》(제1부)에서는 정월대보름놀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있다.

《공지에서는 전라도광대패가 놀아대고있었다.

명절비음을 한 술한 사람들이 담을 쌓고 그것을 구경하고있었다. 맨앞에는 박쥐저고리(색동저고리)를 입고 조바위를 쓰고 당혜를 신은 녀자애들과 전복에 복건을 쓰고 태사혜를 신은 사내아이들이 줄느런히 앉아있었고 그뒤에는 중치막이나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들이 서있는데 그들도 신분구별이 엄격하여 선비는 푸른빛이요 평민은 흰빛이였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는 좀체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쓰고 도포를 입고 실패를 띤 량반 관료들이며 심의에 큰 띠를 띠고 복건을 쓴 점잖은 유생들도 끼여있었다. 년중 큰 명절이라 너인들도 많았는데 치마저고리에 행주치마를 걸친 려염집아낙네들은 물론 삼희장저고리에 털배자를 입고 조바위나 남바위를 쓰고 손에는 털토시를 낀 량반대가집 귀부인들도 보였다.》

실례에서는 당시 력사적시기에 따르는 생활풍습과 신분적구별, 시대상이 방불히 안겨오도록 다양한 인물들의 옷차림에 대한 화폭을 력사주의적원칙에서 묘사하였다.

력사소설창작에서 세태풍속묘사를 할 때에는 계급관계를 정확히 잘 그려야 내용의 로동계급성도, 력사적진실성도 보장할수 있다.

세태풍속은 지역별풍습도 정확히 알고 형상하여야 한다.

세태풍속은 한 나라안에서도 지역별, 지방별로 차이를 가진다. 그것은 세태풍속이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중요하게 련관되기때문이다.

세태풍속묘사를 할 때 지역별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작은 세태풍속묘사때문에 력사소설전체의 진실성이 떨어질수 있다.

세태풍속묘사를 력사적사실에 맞게 한다고 하면서 속되고 비본질적인것을 되살리거나 조선사람들의 정서와 비위에 맞지 않는 이색적인 생활을 끌어들이는 현상을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밝고 락후한것이 아니라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풍속을 현대성의 원칙에서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이다.

세태풍속을 현대성의 원칙에서 묘사한다는것은 오늘의 시점에서 해당 시대의 세태풍속을 평가하고 작품의 내용에 맞게 그린다는것을 말한다.

현대성의 원칙에서 세태풍속을 묘사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밝고 락후한 풍속을 기계적으로 옮겨놓는 복고주의적경향을 없애는것이다.

세태풍속에는 지나간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있던 밝고 미숙한 사상과 심리, 뒤떨어진 문화수준 그리고 봉건적인것, 미신적인것을 비롯하여 밝고 뒤떨어진것들도 적지 않다. 또한 지난날에는 진보적인것이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아무런 교양적가치도 없는것도 있는것만큼 그것을 내세우고 장려할 필요가 없다.

인민들의 지향과 미감에 맞지 않는 풍습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허례허식이 많은 밝은 제사풍습이나 혼인풍습 등과 같은 지난날의 밝은 풍습을 세세히 장황하게 묘사하는것은 현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오늘날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취미에 맞게 생활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민족생활을 무력대고 현대적으로 개작해놓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력사적진실을 외곡하는것으로 된다.

작품에서는 지난날의 생활을 개작하여 현대화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그 생활가운데서 오늘 우리 인민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진보적이고 아름다운 생활을 찾아내어 보여주어야 한다.

조선사람의 정서와 비위에 맞지 않는 이색적인 생활을 작품에 끌어들이거나 력사와

생활을 외곽하고 민족적정서를 흐리게 하며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는 경향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력사소설에서는 반드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세태풍속을 형상하여야 한다.

2.3. 세태풍속묘사의 실천적방도

력사소설창작에서 세태풍속묘사를 잘하자면 세태풍속을 어떤 방법으로 소설속에 용해시키겠는가 하는 실천적방도를 잘 알아야 한다.

세태풍속을 어느 부분에 어떤 목적으로 설정하겠는가 하는것은 창작실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력사소설창작에서 세태풍속묘사를 덮어놓고 많이 한다고 하여 좋은것이 아니다. 세태풍속묘사가 장황하면 소설의 기본내용이 거기에 가리워질수 있다.

세태풍속묘사는 어디까지나 소설의 기본인물과 사건을 부각시키는 원칙에서, 소설의 양상과 정서를 살리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먼저 세태풍속을 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을 돋구어주는 생활바탕으로 묘사하는것이다.

모든 풍속묘사는 인물들의 성격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인상깊은 화폭으로 펼쳐져야 한다.

세태풍속에는 사람들의 생활과 성격이 비껴있으며 세태풍속 그자체가 인물들의 성격형상에 여러가지로 영향을 주게 된다.

모든 세태풍속에는 자기의 고유한 속성이 있다. 그것은 세태풍속을 창조한 인간들의 지향이며 세태풍속이 사람들의 정서에 주는 영향이다.

례를 들어 우리 녀성들이 지난날 즐겨 놀곤했던 풍속의 하나인 널뛰기에는 집안에 해종일 간혀있다싶이 하는 녀인들이 담장밖을 보기 위하여 널뛰기를 하였다는 유래가 있다. 이것은 널뛰기라는 하나의 풍속에도 자신들을 칭칭 엮어매놓은 봉건적유습에서 벗어나보려는 녀인들의 소박한 소망이 깃들어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모든 풍속은 자기의 고유한 뜻과 정서적색채를 가지고있다.

이러한 풍속을 인물형상과 결부하여 잘 그리면 인물들의 성격을 보다 형상적으로 강조할수 있다.

실례로 장편력사소설 《울릉도》, 《높새바람》, 《성벽에 비낀 불길》에서는 다같이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속의 하나인 석전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이 작품들의 공통성은 주인공들이 다같이 반침략애국투쟁의 앞장에 서있는 인물들이라는것이다.

반침략애국투쟁을 주제로 한 우의 소설들에서 주인공들이 석투군들로 형상된것은 석전놀이가 민간에서 경기의 성격을 띠고 진행된 놀이인 동시에 반침략애국투쟁에 적극 기여한 민속놀이인것과 관련된다.

고려봉건국가는 돌팔매를 잘하는 사람들로써 자주 척석군, 석투군이라는 돌팔매부대를 조직하여 왜구를 물리치는 싸움에 동원시켜 위력을 발휘하게 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봉건국가는 돌팔매를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척석군을 조

직하였다.

이와 같은 석전의 발생과 발전과정은 석전이 사람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고 애국주의 정신과 집단력을 키워주는 민속놀이의 하나라는것을 말해준다.

석전이라는 풍속이 안고있는 이러한 고유한 속성으로부터 장편력사소설 《높새바람》에서는 주인공 늑쇠를 석전패의 두령으로 설정하였다.

력사에는 16세기초 삼포왜란때 왜적의 침입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돌팔매군들이 전투승리를 보장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작가는 이러한 력사기록에서 주인공의 성격적개성의 측면을 파악하고 왜구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안고 고향에 쳐들어온 왜구들을 쳐물리치는데서 관건적인 역할을 한 늑쇠를 유명한 돌팔매군으로, 체구가 다부지고 눈길이 만만치 않으며 그가 석전판에 들어가고 나가는데 따라 승부가 왔다갔다하는 표범같은 총각으로 성격을 형상하였다.

력사소설창작에서는 세태풍속에 대한 인물의 립장과 태도, 세태풍속을 받아들이는 인물의 행위를 통하여서도 인물성격의 개성적면모를 보여줄수 있다.

세태풍속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같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때와 경우에 따라 풍속에 대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난다.

세태풍속을 대하는 립장과 세태풍속의 진행과정에 나타나는 인간의 남다른 면모는 인물들의 성격적개성을 표현한다.

장편력사소설 《검이여 불타라》에서는 고려의 장수 박위가 삼월삼짇날 누구나가 다 화전놀이로 흥그러운 하루를 보낼 때 군영에서 무술시합을 조직하는 세부가 있다.

원래 삼월삼짇날 사냥경기를 비롯한 무술경기를 하는것은 고구려의 풍속이었다. 그러나 후기신라에서는 삼월삼짇날 화전놀이를 하면서 시내가에 모여앉아 음식이나 나누어 먹었다. 고려시기에 와서 삼월삼짇날 후기신라의 화전놀이를 본받아 강가에서 꽃을 감상하고 화전을 지저먹으면서 노는것이 하나의 풍속으로 굳어져갔다.

이런 때 고려말기의 장군 박위는 해마다 삼월삼짇날 어김없이 군영군사들의 무술시합을 조직하군 한다. 그것은 박위가 자기의 군영에서만이라도 고구려의 상무기풍을 면면히 이어가고싶었기때문이였다. 박위는 사냥경기가 아니라 흥타령이나 부르는 변해버린 풍속의 하루에서 날로 상무기풍이 희박해지고 음풍영월속에 조락해가는 고려국의 모습을 보고 자기자신만이라도 국력을 강화하려고 애를 쓴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풍속을 대하는 박위의 남다른 태도를 그려주어 나라의 운명과 국방력을 놓고 진정으로 마음쓰는 무관이며 애국자인 박위의 성격을 엿볼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력사소설창작에서 세태풍속묘사는 철저히 인간의 성격형상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세태풍속을 인물관계가 맺어지고 이야기줄거리가 발전하는 극적인 생활적 계기로 묘사하는것이다.

세태풍속은 그자체가 독자적인 견인력을 내포하고있다.

그러나 세태풍속을 단순히 작품에 흥미거리로 끌어들일수는 없다. 더우기 민족행사나 민속명절의식, 민속놀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줄거리를 이루는 세태풍속들을 력사소설속에 어떻게 삽입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작품의 전반형상구도와의 련관속에서 신

중히 타산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력사소설창작에서는 세태풍속을 인물들의 극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는 형상마당으로 설정하여 작품의 극성을 높여줄수 있다.

세태풍속도 마땅히 소설에 등장한 인물들의 생활의 한 단면으로 되어야 한다. 즉 세태풍속은 인물들의 구체적인 생활이 살아숨쉬는 극적인 생활마당으로 그려져야 한다.

중편력사소설 《설죽화》에서는 봄철사냥놀이를 계기로 인물관계를 맺어주고있다.

소설에서는 외적을 쳐부시는 전장의 꽃으로 력사에 남은 력사적인물 설죽화의 투쟁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의 소재적특성에 맞게 봄철사냥놀이로 소설을 시작하였다.

소설에서는 사냥놀이를 계기로 소설의 기본인물들인 설죽화와 강감찬, 세울이의 관계를 맺어주었다.

무관이었던 아버지 리관이 거란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홍주성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자 설죽화는 굴암산에 들어가 외삼촌에게서 무술을 배운다. 사냥경기에 메나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설죽화는 무술솜씨가 만만치 않은 세울이라는 총각과 맞다들린다. 설죽화는 사냥경기에서 아쉽게도 2등을 하고 1등은 통주성이 고향인 세울이라는 총각이 하게 된다. 그러나 1등을 한 세울이는 상을 타려 나타나지 않고 설죽화만 서경류수 강감찬에게서 사냥경기상으로 갑옷과 말을 받는다. 설죽화는 자기의 외삼촌에게서 무술을 배우고싶다는 세울이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인다. 이리하여 아버지들이 통주성에서 함께 싸운 전우인 사연을 안고있는 설죽화와 세울이사이 극적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민속놀이를 형상마당으로 하여 인물관계를 맺어주었다.

력사소설창작에서는 세태풍속을 사건을 극적으로 추동하고 변화시키는 형상마당으로 설정하여 이야기줄거리에 극적굴곡을 마련해줄수 있다.

력사적사건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투쟁과정이 모여 이루어지는것이다. 때문에 세태풍속도 력사적사건을 보충하고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세태풍속을 통하여 력사적사건들의 련계를 원활하게 맺어주며 력사적사건의 빈공간을 예술적으로 메꿀수 있다.

중편력사소설 《부루나의 밤》에서는 고조선의 제천행사인 《무천》놀이를 사건발단의 계기로 설정하고있다.

《무천》놀이에서는 신성한 제물을 천신에게 희생물로 바쳐야 하는데 단 한칼에 황소를 꺼꾸러뜨려야 했다.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황소발톱을 뽑아 불에 지져 그것이 벌어지면 홍조가 들고 모두어지면 길조가 든다는 미신적인 관념이 우세한 의식이였다. 그런데 가병이 황소의 두뿔사이 정수리를 내리친다는것이 그만 빗맞히는바람에 《무천》행사는 아비규환이 되고만다. 칼에 빗맞아 피가 솟구치자 황소는 무섭게 사람들을 향해 내닫는다.

황소는 성난 사자마냥 사나운 뿔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치받고 발길로 걷어찬다. 사람들모두가 혼비백산하여 공포에 떨고있을 때 한 총각이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황소를 꺼꾸러뜨린다. 이 총각이 바로 소설의 주인공 해우였다. 해우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서 구원되지만 노예주 미궁치는 해우를 기어이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야겠다는 속꿈꾸이를 하며 이때부터 소설의 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첫시작을 고조선시기 민족의식의 하나인 《무천》행사를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력사소설안에서 세태풍속은 이렇게 인물들의 구체적인 생활속에 펼쳐지고 또 세태풍속이 인물들의 새로운 생활을 낳는 하나의 형상고리로 되는것이 리상적이다.

력사소설창작에서 세태풍속묘사를 기본사건의 한 고리로 설정하는 경우 중요한것은 소설의 주제와 관통되는 성격의 세태풍속을 선정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즉 소설의 주제와 련관성있는 세태풍속을 탐구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세태풍속을 보다 특색있게 펼쳐보임으로써 형상의 새로운 맛을 살리는것이다.

력사소설의 세태풍속묘사에서 극복해야 할 경향의 하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세태풍속을 여러 작품에서 거의나 반복적으로 묘사하는것이다.

작품마다 세태풍속에 대한 형상이 새로와야 력사소설의 견인력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풍속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상식을 줄수 있다.

력사소설창작에서는 다른 력사소설들에서 형상되지 않은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풍속을 적극 찾아내어 소설의 흥미를 돋구어줄수 있다.

반만년의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은 민족고유의 풍속을 수없이 창조하였다. 시대와 사회의 변천과정속에 생명력이 약한 풍속은 사멸되고 침략자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적지 않은 민족풍속이 자취를 감추었다.

력사의 두툼한 락엽속에 묻혀있는 풍속을 적극 발굴, 재현하는것은 작품의 흥미보장 문제이기 전에 민족력사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우리 민족의 슬기와 정서를 보다 폭넓게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

여기서 류의할점은 지난날의 락후하고 저속한 풍속까지 일일이 다 발굴하여 재현할 필요는 없다는것이다. 풍속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을 고증하는 방향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풍속을 적극 탐구하여 형상하는데서 장편력사소설 《검이어 불타라》와 《김정호》의 창작경험이 좋은 실례로 된다.

장편력사소설 《검이어 불타라》에는 고려시기의 국가적인 민속명절놀이였던 연등회, 류두명절, 사냥놀이, 화전놀이 등과 함께 민간민속놀이에 속하는 봉죽놀이, 호미씻기놀이, 거북놀이, 칠월칠석놀이 등도 화폭적으로 실감있게 형상하였다.

장편력사소설 《김정호》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명절의 하나인 정월대보름명절풍습을 다양한 민속놀이를 통하여 흥미있게 펼쳐보였다.

소설에서는 풍년을 기원하는 인민들의 념원, 생활에서의 기쁨과 성과를 기대하는 뜻에서 벌어진 정월대보름날의 전통적인 놀이들인 달맞이, 다리밟이 등을 방불하게 펼쳐주어 정월대보름을 형상한 다른 력사소설들에 비해볼 때 그 형상력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력사소설창작에서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풍속이라고 하여도 특색있게 그려내어 새로운 형상으로 독자들에게 안겨오게 할수 있다.

같은 세태풍속도 작품마다 새롭게 안겨오도록 형상하는것이 원칙이다.

세태풍속 그 자체는 변경할수도 보충할수도 없다. 그렇다고 작품들마다에 같은 세태풍속을 반복하여 한가지 인상을 주는것도 창작의 본성에 어긋나는것이다.

세태풍속 그 자체는 내용이 공고하지만 생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느낌은 각이하다.

력사소설창작에서는 세태풍속의 내용에 현혹되어 그럴것이 아니라 세태풍속을 대하는 개성적인간의 움직임과 심리를 새롭게 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세태풍속이 새로 와서 형상이 반드시 새로운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이 새로울 때 형상이 새롭게 된다.

많은 작품들에서 널리 쓰인 세태풍속이라고 하여도 그에 대한 분석이 다르고 그것을 감수하는 등장인물들의 느낌이 새로우면 새로운 풍속으로 안겨오게 되는것이다.

한 작품에서도 풍속에 대한 여러 인물들의 차이나는 태도를 통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풍속에 대한 강렬한 인상을 안겨줄수도 있다.

이처럼 력사소설의 세태풍속묘사에서 중요한것은 세태풍속을 소설형상의 한 고리로 설정하여 소설에 펼쳐진 력사적사실과 잘 융합시키는것이다.

3. 결 론

력사소설에서 생활을 잘 그리자면 민족적인 생활을 력사주의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에서 옳게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에서 세태풍속묘사도 그 위치를 무시할수 없다.

세태풍속묘사는 력사소설의 민족적인 맛을 살리는 형상적효과를 나타내는것과 함께 사람들에게 높은 민족적자긍심을 심어주는 인식교양적역할도 수행한다. 세태풍속묘사와 관련하여 리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창작가들은 력사소설창작의 세태풍속묘사에서 나서는 요구와 실천적방도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실천에 구현함으로써 민족적정서와 색채가 짙게 흐르는 력사소설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조선식문명을 창조하려는 우리 당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세태풍속, 력사소설, 민속, 민족성